경상남도 GYEONGNAM	인도네시아 언론 보도 (2019 년 6 월 11 일, HanInPost)	자카르타사무소 2019 . 6 . 11 (화)

□ 항공자유화 협정으로 한국-인도네시아 간 운수권 추가될까?

현재 파악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운수권은 총 45 회이다. 이 중 33 회를 사용하고 있다. 대한항공이 인천-자카르타 7 회, 인천-발리 6 회를 운항하고 있으며, 아시아나항공이 인천-자카르타 7 회를 운항 중이다. 아시아나가 인천-발리 운항을 하지 않으면서 남은 3 회가 있다. 인도네시아 측 운수권은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인천-자카르타 7 회, 인천-발리 6 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7 월 중에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인천-발리를 데일리 운항으로 변경을 하면 총 14 회를 사용할 예정이다. 현재 한국은 3 회, 인도네시아는 9 회의 운수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측은 남은 운수권 선점을 위해 부산-자카르타, 부산-발리의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. 인도네시아 국적의 라이온에어도 전세기 형태로 한국 취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라이온에어와 접촉한 업계에 따르면 항공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다는 소문이다. 그래서 부산-인도네시아 간 전세기 형태의 운항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
부산과 인도네시아 수요는 상용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, 부산에서 자카르타 트랜스 입국 승객이 현재 170 명 정도 된다는 소식도 들린다. 업계에서는 과거 신발과 고무 관련 산업, 목재 산업 등이 활발했던 부산과 인도네시아 간 비즈니스 수요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, 여기에 부산과 동남권 관광수요까지 합치면 주 3 회 운항의 좌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항공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.

부산-인도네시아 노선 운항 탄력 받나?

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 월 25~26 일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또한 2011 년 이래 장관급으로 개최되어오던 한-메콩 회의도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11 월 27 일에 부산에서 개최된다. 이번 한-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사전 의제로 한-아세안 항공자유화협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항공사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. 또한 올 하반기 한국-인도네시아, 스위스 항공회담 개최가 거론되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노선이 관심을 받고 있다. 인천~자카르타 탑승률은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이 81%, 아시아나항공이 84%다. 인천~ 발리 노선의 탑승률도 평균 80%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항공업계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~자카르타 노선의 운항횟수 증대 여부와 부산(김해)~자카르타 직항편이 새로 개설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 항공회담에서 한국-인도네시아 운수권 신설이 결정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하늘 길은 현재 주당 운항하고 있는 33 회에서 어느 정도 늘어날 지도 관심사다.

여기에 인도네시아의 기존 운수권 미사용분 9 회의 향방도 주목된다. 앞서 언급한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미사용분 9 회를 부산에서 사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. 남부지역의 상용 및 관광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부산 취항을 추진하는 배경이다.

기존 정규편 운항 외에 항공 운수권 회담에서 자카르타 주 7 회(매일 운항), 발리 주 3 회 운항 등이 추가되면 양국에서 약 20 회 정도의 운수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 인도네시아 노선에 눈독을 들이는 곳은 주로 저비용항공사(LCC)들이다.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항공기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지역 중장거리 노선 경쟁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다.